전북불교네트워크 '송년의 밤' 개최

전북지역에서 생명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북불교네트워크와 (사)자연음식문화원 2015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12월 13일 전주시 금암동 생명평화센터에서 열린 이 날 송년의 밤 행사에는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 금선암 주지 덕산 스님,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 실상사 주지 응묵 스님, 前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대표 법일 스님, 김백호 전북불교신도회장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행사는 전북불교네트워크와 자연음식문화원의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영상 시청, 대표인사말, 법어, 만찬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법 스님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약자들이다" 며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화쟁사상을 통해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불교네트워크와 (사)자연음식문화원은 2016년에 전북불교의 네트워크 강화, 사찰음식강좌와 시민식생활 교육, 자비나눔 봉사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 부처님세상 법연의 밤 개최

(사) 부처님세상 전북불교대학(학장 도원)이 2015년 한해를 회고하고 새해 희망을 다짐하는 '부처님세상 회향 법연의 밤' 을 개최했다.

12월 13일 전주 알펜시아 웨딩홀에서 열린 이날 법연의 밤은 전북불교대학 재학생을 비롯해 동문 15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불교대학 가족들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진지한 시간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로 담아 진행됐다.

도원 스님은 "올해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사단법인 부처님 세상이 새롭게 출범했고 학제 개편 등 다양한 시도가 진행중에 있다" 며 " 꿈과 희망을 가지고 부처님께 한발 더 나아가 정진으로 행복이 가득한 새해가 되기 기원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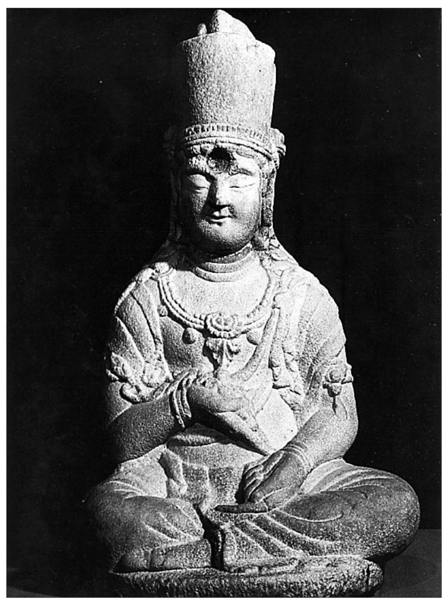
이어 올 한해 전북불교대학의 발전을 위해 봉사와 전법에 앞장선 학인들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고 학인들의 사물놀이 공연, 마술, 섹소폰 연주, 가야금 병창, 노래자랑등 전북불교대학 가족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레크레이션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강릉 한송사지, 남항진동 아니다"

최태선 중앙승가대 교수 17일 강릉문화원 세미나서

해당지역은 砂丘로 암반층 없어 대형 가람인 한송사 건립 못해 "위치 파악 위해 지표조사 확대"



한송사에서는 출토된 국보 제124호 석조보살좌상. 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한일협정 때 반환됐다.

근현대 기록 대부분이 한송사지로 기록하고 있는 '강릉 남항진동 113-2번지' 가 지형상 2~3m 높이의 모래땅으로 대형 가람인 한송사의 터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태선 중앙승가대 교수는 12월 17일 강릉문화원에서 열린 제16회 강릉전통문화학술세미나에서 '가람의 정의와 한송사지, 그리고 정비' 를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금까지 알려진 한송사지 위치에 대한 통설을 뒤집는 지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최 교수는 논문에서 "남항진동 113-2번지가 한송사지라는 뚜렷한 근거나 관련 학술 논문이 없고 디지털강릉문화대전에도 명확한 사지의 정황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지표조사 결과 해당지의 40m 범위가 높은 사구로 이뤄져 있고 주변에도 기반층이나 암반층이 확인되지 않아 대형 가람인 한송사가 건립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간으로 통설을 뒤집는 근거로는 △석재들이 1880년 후반에 있었던 해일에 완전히 덮여야 함에도 땅 위로 드러나 있는 점 △20간 또는 78간으로 추정되는 대형 가람이었음에도 지표상 기단토의 흔적이 없는 점 △간단한 구조의 기와집 흔적만 있고 고려 · 조선조 본격적인 사찰 건물구조는 확인되지 않는 점 △사찰은 대부분 평지 해변이 아닌 언덕에 건립되는 점 등을 들었다.

최 교수는 "국보와 보물로 각각 지정된 두 구의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과 보상좌상의 대좌로 추정되는 코끼리와 사자 대좌, 기와편, 자기편 등이 나온 것은 조선시대 왜구들이 약탈한 문화재 반출을 위해 해안인 사지 추정지역에 옮겨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한송사의 명확한 위치 확인을 위해 종으로 동해안 일대, 횡으로 굴산사지 인근까지 지표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송사는 남항진동의 바닷가에 건립된 사찰로 본명은 문수사(文殊寺)라 한다. 한송사는 해일로 인하여 모두 소실되었는데, 당시에 사찰의 모든 유물을 우물에 넣었다고 전해진다.

한송사에서는 2구의 대리석제 석조보살좌상이 출토된 바 있다. 이중에서 1구는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한일협정 때 반환된 후 국보 제124호로 지정돼 국립춘천박물관에 보존돼 있다. 다른 1구는 보물 제81호로 지정돼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이 소장 중에 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홍성익 강원대 강사가 '한송사지의 문헌 · 고고자료에 대한 종합적 검토' 주제발표를 하고 전문가 토론 논의가 이어졌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어려운 환우들에게 자비 광명을"

생명나눔실천 광주본부 '생명나눔의 날' 개최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는 12월 16일 '2015 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갖고 올 한 해 나눔 봉사활동을 마무리 했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현지)는 12월 16일 '2015 생명나눔의 날' 행사를 갖고 올 한 해 나눔 봉사활동을 마무리 했다.

광주 수자타에서 진행한 행사에는 현지 스님, 지각 스님(동원사 회주),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 보혜 스님(비전사 주지)을 비롯해 100여 명이 자원봉사자와 후원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올 한 해 우수 후원자와 봉사자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정현숙 씨가 자원봉사자 광주광역시장상을 살레시오중학교 정서윤 양이 광주시교육감상을 수상했다.

이어 김종범 광주불교방송 차장, SK텔레콤 서부네트워크본부에 감사패를 조남호, 홍보덕화, 김영옥, 허양순, 이정숙, 민경빈 님에게 자원봉사자상을 전했다.

생명나눔활동을 위한 개인과 단체들의 기금전달도 눈길을 끌었다.

SK텔레콤이 200만원, 미스A 수지 양이 500만원, 연화암 신도회에서 150만원을 나눔기금으로 전했고, 생명나눔의 홍보업체인 '아름다운 나눔의 집' 에 설치된 모금함과 사랑의 저금통에서 모인 모금액 전달이 이어져 연말 나눔의 감동이 전해졌다.

특히 노래하는 스님으로 알려진 수안 스님이 홍보대사로 위촉돼 생명나눔실천회를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지 스님은 인사말에서 "한 해 동안 생명나눔 활동에 동참하신 자원봉사자와 후원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작은 힘이나마 어려운 환우들에게 전달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회원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봉사와 희생을 덕목으로 삼아라"

순창 경찰서, 14일 암도 스님 초청 법회

순창경찰서(서장 박헌수)와 순창경찰서 경승실(실장 청암, 장덕사 주지)이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사진〉을 초청해 특별 법회를 개최했다.

12월 14일 순창경찰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강연회는 박헌수 서장을 비롯해 수창 경찰서 직원들과 전의경, 청암 스님 등 경승실 스님등 100여명이 참석해 스님의 강의를 경청했다.

암도스님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의 법문을 통해 "공무원이 청렴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갈 때 국가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해 질수 있다" 며 "봉사와 희생을 가장 큰 덕목으로 삼고 시민의 안전과 국가발전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암 스님은 "순창경찰서 경승실은 꾸준하게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며 "순창경찰서에 법당을 마련하는 등 직원들과 전 의경의 신행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경찰서 경승실은 정기적으로 직원들과 전의경들을 위한 법회를 개최하고 내년 신축 예정인 새 청사에 법당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순창경찰서와 순창경찰서 경승실은 조계종 원로의원 암도 스님을 초청해 특별 법회를 개최했다.

강진 시방사 극락보전 낙성법회

주지스님의 10여 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낙성법회의 감회를 맞은 사찰이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강진 시방사(주지 성묵)는 지난 13일 10여 년간 이어진 사찰 창건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극락보전 낙성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지 성묵 스님은 대중들에게 감사의 3배를 올리며, "부처님의 법을 수행하는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어 감사하다" 며, "인간의 몸을 받고 있을 때 부지런히 수행정진을 해 은혜를 갚도록 하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조계종 18교구 말사로 등록된 시방사는 37년 전 비구니 스님이 임법당을 지으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0여 년 전 주지 성묵스님이 수행처로 삼으면서 비로소 사찰 형식으로 창건을 시작해 이날 전면 3칸의 18평의 다포계 양식의 목조건물과 종각, 축대 등을 낙성했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금담스님(진주 극락선원), 대경스님(송광사 율원장), 법정스님(강진불교사암연합회장)과 낙성법회에 큰 도움을 준 서경스님(광주 지장암 주지), 도계스님(광주 소원정사 주지)을 비롯해 신도 200여 명이 참석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강진 시방사는 12월 13일 10여 년간 이어진 사찰 창건의 과정을 마무리하는 극락보전 낙성법회를 개최했다.

한국 최초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한불교웅변대학 제1기생 모집**

❶ 대학개설취지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결코 풀을 뜯지 않는 것"처럼 웅변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그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오더라도 잡초처럼 참고 견디며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와 진실로써 오로지 진리만을 불같은 "사자후"를 터트리는 위대한 웅변가가 되어야 한다.

"세치의 혀는 칼보다 무섭고" 침묵보다 무거운 정치가의 말 한마디는 "역사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웅변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써 배우고자 하는 후학들이 있다면 부처님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전수하고자 함입니다.

❷ 입학 및 수강안내

모집인원	자 격	제출서류	강의시간 및 장소
웅변, 연설, 기타 (30명) 특별반 0명	비구, 비구니, 법사 기업인(대표), 공무원, 단체, 정치인, 지도자, 일반인(남, 여)	입학권서(1통) 사진 1장	매주 화요일 : 6시 30분~9시(2시간 30분) 매주 목요일 : 6시 30분~9시(2시간 30분) ●장 소 : 백용사 대 법당 *시간조절 가능(입학식때 의견조율) 일주일 2번 (6개월간 강의)
① 교육내용	웅변(3분스피치) 원고작성법을 배우면 훌륭한 연사가 될 수 있음		
●법문, 연설, 축사, 강연(기타), 임기웅변(3분 스피치) ●총장님(해봉) 직접강의 ●주옥같은 수많은 원고(대회, 강연, 출사, 기타) 내용을 예를 들어 시범 원고작성법 강의(중점적으로 강의)		●태도 : 연단(표정과 자세) 실기 ●성량 : 발성법 → 고저장단, 호소력, 호흡조 걸(단문원고 연습, 시범, 실기반복) ●원고작성법 → 서론, 본론, 결론(3단논법)에 의한 청중을 감동, 설득 시킬수 있는 내용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가(중점적으로 강의) ●연단경험 : 매일 연단에 서게 함(단문원고) ●강평 : 연사마다 장 단점	
④ 본대학 이수시 본대학 졸업장 수여		⑤ 입학금, 등록금	없음(보시하겠습니다)
		※ 교재비	6개월간 10만원
⑥ 입학식	2016년 1월 5일(화요일) 오후 5시	⑦ 원서교부기간	2015년 12월 14일부터 - 2016년 1월 3일까지(선착순)

대한불교 웅변대학 총장 해 봉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 17번길 42-9(하안동) / 010-6565-2042